

이책의 한구절

“인과 알면 인생이 보인다”

‘불교 속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송위지 엮음



〈불교 속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우리는 남방 상좌부 불교권의 대표적 나라인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에 전해지는 설화 속에 녹아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국가나 지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이야기 구조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들 이야기들의 핵심은 인과(因果)의 가르침이다. 그것은 남방 불교권 설화의 대부분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세에 중생을 교화한 이야기를 모은 〈자타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스리랑카의 경우 생활이 곧 불교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천주교와 개신교 성공회를 앞세운 서구 제국주의 국가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에게 400년 이상 지배를 받으면서도 불법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교 사상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스리랑카의 개국설화다. 이 책에는 두 편의 스리랑카 개국설화가 소개되었는데, 여기서 스리랑카인들은 스스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사자(獅子 : 개국설화의 주인공 상가라의 뜻으로 지금은 스리랑카인을 부르는 칭호)로 변했다는 후예라고 칭하고 있다. 이는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며 살겠다는 스리랑카

인들의 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상과 염원으로 수많은 불교설화가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 불교설화의 특징은 현세만의 과보 개념이 아니라 여러 생애에 걸친 인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 책에 소개된 37편의 설화들은 현재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 소개된 설화들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이나 홍미성보라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삶의 근본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주종을 이룬다.

동남아 설화 37편 소개 삶의 교훈 ‘흥미롭게’

이야기의 주인공은 동물이나 아차(夜叉 : 신성한 초자연적 존재) 그리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들을 통해 보여주는 교훈은 묵직하게 다가온다. 특히 역은이는 이야기마다 담고 있는 교훈을 알기 쉽게, 현실에 맞게 짧은 해설을 덧붙여 읽는 재미까지 더해준다.

〈불교 속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는 ‘아시아 불교설화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권. 이 시리즈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네팔·부탄 등 모두 9권으로 완간될 계획이다.

역은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연구원 송위지 교수로, 〈모든 이에게 이익을 주는 책〉, 〈불교 선수행의 핵심〉, 〈동양의 음식 문화〉 등을 펴냈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gamsa@buddhapia.com



남방불교인들의 생활은 곧 불교다. 수행자들에게 보시를 하고 있는 라오스 사람들.

“우리 마음 성품이나 우주 본래의 생명자리인 법신 부처님이 나 똑같다. 그러므로 자성정성이 바로 참다운 부처다. 부처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금 새삼스럽게 뒤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라는 소식이다.” -〈단박에 윤회를 끊는 가르침〉(김지수 옮김, 불광, 값 5천 원)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영원하므로 종말이 없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해매고 있다. 욕심이 자취를 감추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순금인 자기를 바로 봅니다.” -성철 스님의 법문집 〈자기를 바로 봅시다〉(성철 스님 지음, 장경각, 값 8천 원)

“사찰의 모든 조형물에는 해탈과 교화의 의미가 절절되어 있

절하면 번뇌망상 줄고 욕심 비우면 마음 열려

다. 사찰의 초입에서부터 법당 한가운데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수행자의 신심을 북돋우고 그 정신을 되살리게 하는 깊은 의미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김현준 지음, 효림, 값 7천 원)

“한국불교는 입으로 대승불교를 표방하면서 수행과 수행의 면에서나 교리적으로 전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의 한국불교가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진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여래의 모든 가르침은 해탈의 일미성에 있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수행관을 정립시켜야 한다.” -〈재가자를 위한 수행지침서 〈수행으로 가는 길〉(이제열 지음, 대원정사, 값 6천 원)

“절을 하면 번뇌 망상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려운 일도 마음으로 풀어나가는 인내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합당한 의욕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절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재가자를 위한 수행지침서〉(정경 스님 지음, 붓다의 마을, 값 6천5백 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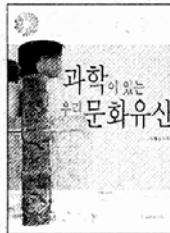
책방 역시이온 집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거울	원성 이레	이레
2	화염의 세계	해자 민족사	민족사
3	성경엔 없다	고준환 불지사	불지사
4	산하대지가 잠 빛이다	양형진 장경각	장경각
5	나의 행자시절	박원자 다함미디어	다함미디어
6	신비의 티베트 명상법	주민환 숨	숨
7	불자의 기본 예절	일타 효림	효림
8	바가반이 친히 말씀하신 가르침	해인책 탐구사	탐구사
9	깨달음의 꽃2	하춘생 여래	여래
10	오직할 뿐	본각 불행자리	불행자리

도서 안내: (02) 737-0695

과학의 잣대로 본 우리 토종문화

이종호 ‘과학이 있는...’



〈과학이 있는 우리 문화유산〉(컬처라인)은 한국인 본디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토종문화의 복권을 시도한다. 접근 방법은 현대적 가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논리와 합리, 이 책에서 말하는 ‘과학’이란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족보를 유럽의 가계보와 접목시켜 한국의 족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점, 풍수지리와 이집트 미이라와 연결시켜 분석한 점, 한지가 천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를 실험을 통해 입증해 보인 점, 프랑스 기사가 8시간이나 앉아서 보았다는 ‘판소리’를 양반의 노래와 구별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 등은 지은이 이종호 씨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다. 동서양을 넘나들며 우리의 토종문화(가)를 합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은이의 시도는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값 1만3천 원.

김중근 기자

3,800개 사찰에 깃든 ‘대승풍수’

‘도선비기’ 최범서 지음

〈도선비기〉(전3권, 오상은 신라말 고승 도선(827~898)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역사 소설이다. 지은이는 ‘소설 택리지’, ‘고려 태조 왕건’ 등을 출간한 최범서(62) 씨. 그는 난세에 국토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3800여 곳에 비보사찰을 세우고 탑·부도·당간 등을 조성한 도선 스님의 발자취와 그 시대를 생생하게 복원해 내고 있다.

지은이는 또 현재 도선이란 이름을 도용한 예언서가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선 스님이 남긴 저서는 4권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후세의 위작이라는 것이다.



도선은 백성들을 선택했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전국을 세 바퀴나 돌았다는 지은이는 “도선은 개인의 발복과 입신양명을 빌어주었던 풍수사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 병든 국토를 보원한 대승풍수사이며 원호 대사와 의상 대사 못지않은 고승이었다”고 말했다. 상권 ‘교종과 선종’, 중권 ‘대승풍수와 소승풍수’, 하권 ‘비기는 있다’. 값 각권 7천5백 원.

김중근 기자

선지식 일화 재미 솔솔

김현준 ‘아 일타 큰스님’

도서를 출판하면서 선(禪)과 교(敎) 그리고 율(律)에 달통했던, 이 시대의 대표적인 고승 일타(1929~1999) 스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아 일타 큰스님〉을 내놓았다. 이 책은 불교 신행연구원 원장 김현준 씨가 월간 ‘법공양’에 1년간 연재하였던 글을 보완하여 엮어낸 것이다.

이 책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되어 있다. 스님을 비롯한 가족 41명이 출간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담은 ‘일타스님 가족 이야기’와 스님의 수행과 증생교화 그리고 마지막



일타 큰스님

회향과 입적까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진술하고 재미있게 다룬 ‘일타스님 일대기’다. 또한 이 책에는 일타 스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만공, 전강, 동산, 성철 스님 등 당대를 풍미했던 선지식들과의 일화가 감초처럼 들어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이와 함께 이 책에는 일타 스님의 신비한 전성이야기도 나오는데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스님의 선·교·율에 통달한 고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불연을 확인하게 해준다. 값 5천 원.

김중근 기자

발이 편해야 몸 튼튼



남산스님의 수족 온욕법

현대인들은 큰 작은 스트레스와 질병을 한들 정도는 안고 살아간다. 단지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건강할 듯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몸의 이상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큰 병을 부를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산 스님의 수족 온욕법〉(하남은 피로가 가장 많이 축적되는 부분인 발 관리법을 담은 건강서다. 지은이 남산 스님은 15년 전부터 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발 관리에 대한 연구를 해 왔는데, 옛 문헌을 통해 사찰의 스님들이 잠자리 전 따뜻한 물을 발을 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 ‘남산 스님의 수족 온욕법’,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 온욕법은 40℃정도의 온수에 30여분 내외로 발을 담그는 것이다.

책에는 145가지의 질병에 알맞은 수족 온욕법의 시간과 물 온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족 온욕법의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경혈 테이핑요법’과 ‘파스요법’을 동시에 수록했다. 이외에도 경혈 테이핑과 파스의 부착 위치, 여러 질병에 특효가 있는 약초들의 응용법 등도 첨부했다.

지은이는 “수족 온욕법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기본이 되는 손쉬운 방법이다”고 말했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돈황! 예술과 구도의 혼이 살아 숨쉬는 그 천년의 도시로 떠나고 싶다.

돈황 가는 길

KBS 〈9시 뉴스〉 ‘울여름 읽을 만한 책’으로 선정!
조선, 중앙, 동아, 국민, 한겨레, MBC, YTN 등 전언론이 주목한 책!

〈길 끝나는 곳에 임자가 있다〉의 작가 정찬주가 불심을 품고 구법승의 길을 따라 나선 새로운 지적 여행기.

사막 속 오아시스 도시 돈황! 진리를 찾아 고독한 길을 건넌 구도승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땅.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돈황으로의 여행. 130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우리 앞에 나타난 석굴벽화 속의 화랑으로 추정되는 삼국인 발견. 돈황 석굴벽화에서 화랑으로 추정되는 삼국인 최초 발견!

“전작들에서 정찬주의 독특한 불교적 가치를 통찰하는 심미안과 수승한 문장력에 감탄한 바 없지는 않으나 〈돈황가는 길〉에는 한층 무르익어 마저 진신의 사리를 봉안한 디오탐을 보는 듯한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최인호(소설가)

정찬주 글·사진 | 반양장 | 국번형판 | 296쪽 | 본문 4도 | 값 9,900원

MBC-TV〈일·밤〉 ‘건강보감’

침술의 달인! 한의학계의 풍운아!
이경제 원장이 들려주는 초간편, 초강력 이침요법!

기통찬 한의사 이경제의 **이침 이야기**

“이 시대의 보기도 큰 실력. 그의 이침요법은 정말 놀라운 치료법이다. 나를 포함해 동료 연애인들이 가장 먼저 기다려온 책.”
“적은 침이지만 맞고 나면 믿기 힘들 정도로 금방 좋아짐을 느꼈다. 이제는 그 놀라운 효과를 선전하는 ‘이침전도’가 되어 버렸다.”

이경제 지음 | 변형판 | 256면 | 본문 4도

다이어트, 미용, 금연, 금주는 물론 각종 성인병에서 수험생의 성적 향상까지 이침으로 해결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인정한 이침요법!

부록 1.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의 스티커침 세트
2. 이침반사구 그림카드와 이 스티커침 부록 포함, 이침반사구 그림카드

TEL: (02) 741-1990 FAX: (02) 745-4827 http://www.gimmyoung.com **김영사**